바벨론의 영성과 두로의 영성

(이사야 23:1~18)

1.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2.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7.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바벨론의 영성과 두로의 영성>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바벨론의 영성과 두로의 영성'

바벨론과 두로의 영성을 비교함으로써 중요한 신앙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적 믿음과 인격적 믿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믿음 나름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 믿음만이 칭의(稱義, Justification)를 가능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고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 믿음이 아닌 인격적 믿음이라는 전제에서만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믿음과 인격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벨론의 영성과 두로의 영성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열방의 예언 중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의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스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바벨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대 근동의 패

권국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망하는 단계에 대한 예언을 첫 번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과 두로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특별한 영성을 대표하는 나라로 거명되는 셈입니다.

바벨론의 영성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 파괴적인 영성입니다. 바벨론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물리적으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파괴가 아닐지라도 성전의 본래 존재 의미를 삶에서 제거하려는 영성이 바벨론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에 저항하는 영성이고, 십자가 생활화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성과 동일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벨론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을 방해하는 영성입니다. 바벨론이 파괴한 성전은 곧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교되는 두로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두로의 영성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바벨론의 영성이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의 영성을 대표하고 있다면, 두로의 영성은 세상에 대한 측면의 적극적 영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로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북서쪽이고 지중해의 동쪽 해변에 위치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베니게(페니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바로 영어의 모체가 되는 알파벳이 만들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페니키아는 BC.2700년 전부터 이집트와 해상무역을 하였고, BC.1300~1200년대에는 지중해의 해상권을 가진 강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애굽 이외에도 깃딤과 다시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깃딤은 지중해의 키프로스섬 지역을 일컫는 것이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쪽의 항구도시입니다. 이들이 두로의 멸망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두로가 이들을 식민지로 장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페니키아의 상인들은 아프리카 서쪽 해안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동인도까지 진출해서 왕성하고 강력하게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로와 시돈은 상업과 무역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는 바로 이윤추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에 대해서 종교적 측면의 책망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세벨이 바알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북 이스라엘 전국에 활성화시킵니다. 심지어 남 왕국 유다에까지 바알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상숭배가 심판과 멸망 예언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경우는 8절 이하를 보면 굳이 우상숭배를 지적하지 않고 부귀영화와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 원인을 지독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적 차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믿음의 차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인격적 믿음에 뒤따르는 부수적 요소일 뿐입니다. 일견 우상숭배로 멸망한 나라들도 그 주요한 원인은 우상숭배에 앞서서 인격적 믿음에 문제를 드러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돈입니다. 상업과 무역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두로가 하는 일은 이윤추구였습니다. 즉 바벨론의 영성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다면, 두로의 영성은 세상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적 믿음과 인격적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인격은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격은 고정된 것이 아닌 과정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본래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갖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말,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 공백으로부터 발생하는 흡입력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근원을 따져보면 마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포만감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의 포만감이 만족이고, 마음의 포만감이 유지되는 상태가 평강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채우려는 욕구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하는 것으로써 죄가 아닙니다. 죄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이 작용합니다. 이것이 인격적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인격적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종교적 믿음은 특정한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이슬람에서는 알라신을 믿고 인도의 힌두교에서 시바 신을 믿고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종교적 믿음은 인격적 믿음에 기인합니다. 인격적 믿음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추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믿음도 종교의 신 자체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알라를 추구하거나 그 자체로 마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을 믿어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 신을 통하여 돈을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대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인격적 믿음의 대상으로써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창조하여 신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잘 지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분의 인

격적 믿음의 대상은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당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종교적 믿음의 대상으로 전락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예배당도 없이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마음 채움의 대상으로 믿고 추구한다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인격적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곧 가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라이벌로 재물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두로는 바로 이 재물을 본격적이고 주도적으로 추구한 자들의 대표였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가지려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해하고 막는 자들의 대표였던 것과 비교됩니다.

사실 바벨론의 영성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영성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해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저변에는 두로의 영성이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채움의 유일한 대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인격적 믿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돈이고 무병장수이고 형통 등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로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설교를 하든지 전도를 한다면 그 결과는 바벨론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존재의미를 뿌리째 뽑아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종교적 믿음과 인격적 믿음의 차이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성과 두로의 영성을 통해 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격적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의 성립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죄악의 시작입니다. 벌써 돈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격적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젖혀두고 다른 대상을 통해서 기쁘고 만족하기를 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의 가치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기질이 있습니다.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세상 가치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질에 정복당하여 세상 가치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형성되고 나면 이것을 추구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전능한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것을 갖겠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믿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결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 이미 인격적 믿음이 죄악으로 형성된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적 믿음의 차원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토록 깊은 고찰을 통해 이방나라들을 거명해 가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영성은 하나님 추구를 방해하는 영성입니다. 두로의 영성은 이 세상 것을 주도적으로 추구해가는 영성입니다. 지중해의 상권으로 무역업과 상업을 왕성하게 장악한 두로와 시돈에 등장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부차적인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두로가 가졌던 상업과 무역업으로 인한 부귀영화와 교만을 심판의 원인으로 삼아서 멸망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믿음과 인격적 믿음은 고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진 믿음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속에 유전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고 믿는데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고 충성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분은 바벨론의 영성 즉 종교적 믿음을 가진 목사님이고,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뿌리째 뽑혀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이 상태는 두로의 영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종교적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돈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에 굶주림이 생기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배부르면 돈에 대한 필요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가진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후약방문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마음에 굶주림이 생겨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의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굶주림을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만족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자녀가 형통하지 않아서 만족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사후약방문입니다. 굶주림의 진짜 원인은 외면한 채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굶주림을 채우려고 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자녀가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던 부족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격적 믿음의 오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이 세상 것을 탐스럽게 여기는 유전죄의 기질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 인격적 믿음에 대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계로 안쪽에는 세상의 공간이 있고 바깥쪽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상 쪽에 방치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로의 영성이 활성화되고 인격적 믿음은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마귀의 부추김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영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았으면 다 끝났으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격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믿음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천만번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너머 주님의 공간에 이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죽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유일한 인격적 믿음의 대상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가져야할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영성은 하나님으로 배 부르는 것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영성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로의 영성을 갖게 되면 인격적 믿음은 하

나님이 아닌 세상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적 믿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인격적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은 돈이나 건강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전락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 왕국 유다의 선민들이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여금 바벨론의 영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격적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셔서 두로의 영성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